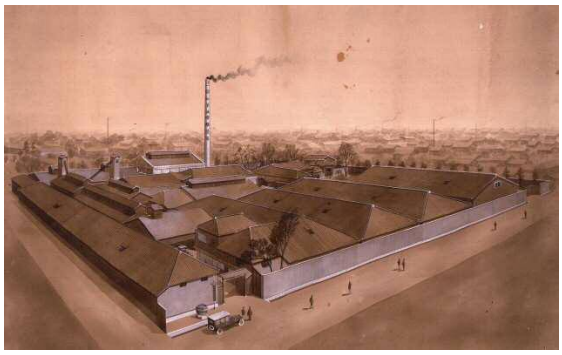
근현대의 시가나와
공업의 시작 철도 개통과 나란히 시나가와의 문명 개화의 상징이 된 것은 유럽·미국의 기계와 기술을 도입한 공장의 출현이었습니다. 1873 년,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진흥 정책으로 기타시나가와에 관영 시나가와 유리 제조소가 설립되었습니다. 1887 년에 공장은 니시무라 가쓰조 등에게 팔려 민영화되어, 맥주병과 식기 등을 생산했습니다. 교통망의 발달과 도시화 당시까지 도시 근교의 농촌이었던 에바라 지역은 1923 년의 간토 대지진※ 이후 도심부에서 유입된 이재민과 지방에서 온 이주자에 의해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지금의 도큐 메구로선, 이케가미선, 오이마치선 등의 개통은 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선로 주변 지역은 잇달아 택지화되고, 상점가가 생겼으며, 연달아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토 대지진: 1923 년 9 월 1 일에 발생한 규모 7.9 의 대지진. 간토 지방 일대에 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전쟁 중의 시나가와 1937 년 중일 전쟁※ 발발 후 사람들의 생활은 공과 사 모두 전시 체제로 편성되는 한편, 물자가 부족하여 생활은 곤궁했습니다. 이윽고 전세가 악화됨에 따라 공습도 심해졌습니다. 특히 1945 년 5 월 24 일~26 일의 공습으로 에바라구(지금의 도쿄도 시나가와구의 서쪽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일 전쟁: 북경 서쪽 교외의 노구교 다리에서 일어난 발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전쟁.

부흥에서 고도 성장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은 있는 재료로 급하게 지은 판잣집에서 생활하며,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러한 전쟁 후의 혼란기를 거쳐 1950 년대가 되자, 사람들의 생활은 차츰 안정되어 갔고, 이윽고 고도 경제성장 시대를 맞았습니다. 1962 년의 수도 고속도로 건설, 1960 년의 도에이(都營: 도쿄도가 운영) 지하철 1 호선(도에이 지하철 아사쿠사선)이 개통되는 한편, 시나가와의 내만 어업은 마지막을 고하고, 바다는 매립되어 뉴타운과 새로운 산업 기지로 모습이 바뀌어 갔습니다.

1_08_01 	센다이 된장 공장 야기 합명회사 센다이 된장 양조소 제공 1924 년 에도시대, 센다이자카(지금의 시나가와구 히가시오이)에는 센다이번(지금의 미야기현 센다이시 주변)의 저택이 있었고, 거기에서 된장을 만들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가 된 후부터는 야기 합명회사가 된장 제조를 이어갔습니다.
1_08_02 	센다이 된장의 도자기 통 메이지 시대 쇼와 61~63 년(1986~1988) 센다이자카 유적 출토 야기 합명회사가 사용하던 센다이 된장을 넣는 용기입니다. 발굴 조사로 출토되었습니다. 이 외에 발굴 조사에서는 에도 시대의 돌로 된 화덕과 메이지 시대의 벽돌로 된 화덕의 유구 등이 발견되어 당시의 된장 양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1_08_03 	유리에 다홍색을 입혀 벚꽃 무늬로 장식한 화병 오시게 주자에몬의 작품이라 전해짐 메이지 시대 19 세기 말 시나가와구 지정 문화재 사쓰마노쿠니 지역(주로 현재의 가고시마현)출신인 오시게 주자에몬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제품 중의 하나입니다. 오시게는 시나가와 유리 제조소에서 유리 제작을 배워 램프 및 식기 등 뛰어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1_08_04 	뚜껑이 달린 유리 사발 메이지 시대 19 세기 말 시나가와 유리 제조소에서 제조되어 이화학(理化學) 제품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됩니다.

1_08_05 	시나가와 백연와 제조소에서 만든 내화 벽돌 메이지 시대 쇼와 61~63 년(1986~1988) 센다이자카 유적 출토 시나가와 백연와 제조소는 1887 년에 시모우사노쿠니 지역 사쿠라(지금의 지바현 사쿠라시) 출신의 니시무라 가쓰조가 시나가와 유리 제조소 내에 설립했습니다.
1_08_06 	등유 램프 메이지 시대~다이쇼 시대 메이지 시대(1868~1911)가 되자, 등유 램프가 급속히 보급되었습니다. 특히 1910 년대부터 1920 년대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1_08_07 	화장수 「명색미안수」 1885 년 발매
1_08_08 	메이지 상회가 만든 치약 메이지 42 년(1909) 이후 발매 “하미가키코”(이빨 닦는 가루)라고 표시되어 있듯이 당시에는 분말 형태였습니다.

1_08_09 	킹 제 2 권 제 10 호 다이쇼 15 년(1926) 10 월 1 일 발행 다이쇼 9 년(1920) 경부터 대중 잡지가 출판되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어 급성장하였습니다. 특히 다이쇼 15 년(1926)에 창간된 “킹”은 100 만부 이상 발행되었습니다.
1_08_10 	주간 메구로 키네마(오른쪽)와 메구로 키네마 명화집 No.1(왼쪽) 오른쪽: 다이쇼 14 년(1925) 왼쪽: 다이쇼 15 년(1926) ‘주간 메구로 키네마’는 다이쇼 12 년에 가미오오사키에 개관한 서양 영화 전문관인 ‘메구로 키네마’의 프로그램으로 ‘메구로 키네마 명화집’은 당시 메구로 키네마에서 상영되는 작품의 소개와 해설을 적은 것입니다.

1_08_11 	코린트 게임(Corinth game) 쇼와 9 년(1934) 경 구슬을 굴려서 즐기는 게임입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봉으로 구슬을 치고, 구멍에 넣어 승부를 겨룹니다. 일본에서는 1934 년경에 유행했습니다.
1_08_12 	가정용 영사기 쇼와 시대(20 세기 전반) 종이로 만든 필름을 수동으로 돌리는 가정용 영사기입니다.
1_08_13 	소이탄(燒夷彈) 1945 년 5 월 25 일, 당시 도쇼 국민학교(도쿄도 시나가와구 유타카초 4-24)의 교정에 떨어진 M69 네이팜 소이탄의 껍데기입니다.

1_08_14 	방위식(防衛食) 도자기 용기 쇼와 18 년(1943) 경 대일본 방공식량 주식회사 제작 헤이세이 16 년(2004) 오오이 카시마 유적 출토 금속은 군수품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통조림의 대용품으로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_08_15 	공습경보 사이렌 쇼와 시대 본체 뒤쪽의 핸들을 돌리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1_08_16 	애국부인회 어깨띠 쇼와 시대 애국부인회란 부상병이나 전사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부인 단체입니다.
1_08_17 	공장에 동원된 학생들이 찼던 완장 쇼와 19 년(1944) 경 학생은 노동력으로서 군수 물자 제조 공장에 동원되었습니다. 1944 년부터 학생이 일 년 내내 동원되기 시작하며, 한 공장에 여러 학교의 학생이 동원되는 사례도 많아져서 식별을 위해 흉장이나 완장을 찼습니다.

1_08_18 	방독면(시민용) 쇼와 18 년(1943) 2 월 내무성 규격품인 17 년식 방공용 방독면입니다. 방화 용구의 하나로 각 가정에 배부되었습니다.
1_08_19 	위문 주머니 쇼와 시대 편지나 오락품 등을 넣어 전장의 병사에게 보냈습니다.

1_08_20 	잡낭 쇼와 20 년(1945) 경 천 가방
1_08_21 	각반(게트르) 쇼와 20 년(1945) 경 움직이기 쉽도록 하기 위해 바짓단과 정강이에 감았습니다.
1_08_22 	철모 쇼와 16 년(1941) 경 병사의 장비로 쓰일 뿐만 아니라 남성의 방공용으로서 시민들도 항상 휴대했습니다.

1_08_23 	방공 두건 쇼와 20 년(1945) 경 여성과 어린이가 방공용으로 휴대했습니다.
1_08_24 	자동 전기밥솥 제 1 호 도시바 제조 1955 년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밥이 지어지는 밥솥이 개발된 것은 1955 년의 일이었습니다.

1_08_25 	소형 텔레비전 소니 주식회사 제작 쇼와 38 년(1963) 당시 세계 최소·최경량 흑백 텔레비전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_08_26 	8 밀리 시네카메라(싱글 8) 캐논카메라 주식회사 제작 쇼와 40 년(1965) 소형 영화용 카메라입니다. 음성은 들어가지 않고 영상만 녹화되었으나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급되었습니다.

1_08_27 	교반식 전기세탁기 마쓰시타 전기산업 주식회사 제작 쇼와 28 년(1953) 1950 년대 후반에 세탁기· 흑백 텔레비전· 냉장고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